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실태와 인식

정현주¹, 박정숙^{1*}

¹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f Abused Drugs by Gender Among Young People

Hyun-Ju Jeong¹, Jeong-Sook Park^{1*}

¹Professor,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층에서 성인층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실태와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해 분석 가능한 설문지 1051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청년들의 성별을 보면 남자 686명, 여자 365명이었으며, 성별에 따라 남용되는 약물의 종류와 마약류 및 남용약물에 대한 폐해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술, 담배, 식욕 억제제, 진정수면제, 아편계열 진통제 사용 경험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마약류 및 남용약물에 대한 폐해 인식 중 위험성과 유발문제인식, 위험성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여성은 257명(68.2%)가 홍보(계몽)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에 대해서 남성은 379명(54.2%)이 인터넷 온라인교육으로 나타났다. 남용약물에 의한 청년층의 약물 중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약물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 청년층, 성별, 약물남용, 사용실태, 인식

Abstract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1051 analyzes of questionnaires in order to examine the status and perception of abused drug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young people entering the adult group from the adolescents. The gender of the young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as 686 males and 365 females, and the types of abused drugs and their perceptions of harmful effects of narcotics and abused drugs were analyzed according to gend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xperience of using alcohol, tobacco, appetite suppressants, sedatives, and opioid analgesic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gender. Among the harmful effects of narcotic drugs and drugs of abuse, significant results were shown on the recognition of risks, induced problems, and sympathy for risks. As for the desirable way to improve the problem of narcotics and substance abuse, 257 women (68.2%) of women wanted publicity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about effective education for preventing narcotics and substance abuse, 379 men (54.2%) of men % appeared as online online education. It is considered that proper education and publicity about drug use is necessary in the reality that drug addiction among young people due to drug abuse is increasing.

Key Words : Young people, Gender, Drug abuse, Usage, Perception

This study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from Nambu University 2022.

*Corresponding Author : Jeong-Sook Park(pk0207@nambu.ac.kr)

Received October 10, 2022

Revised February 1, 2023

Accepted February 20, 2023

Published February 28, 2023

1. 서론

청년층이라 함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단계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칭한다[1]. 성인기 전 단계인 청년층은 자아정체성 정립과 혼란 등으로 인한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취업과 경제적 문제, 사회생활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관계 형성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다양한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통한 약물 남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2].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56.8%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3]. 마약류와 남용약물에 의한 약물 중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 다양한 사회 등으로 퍼져가고, 남용약물에 의한 중독 시 다른 일반적인 질병에 비해 치료가 어려우며 재발의 위험이 매우 높아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4,5]. 그러나 단순한 접근을 막는 것보다 마약류와 남용약물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예방을 위해 교육과 다양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 약물남용 문제는 약물 중독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며 개인,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가 힘을 모아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최근의 마약류와 남용약물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20~30대의 약물남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대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아편계 진통제인 펜타닐을 남용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6]. 또한 대마사용률은 일반성인들 보다 청년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7]. Choi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의 음주와 흡연 실태, 남용약물에 대한 종류와 폐해에 대한 인식에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이 우려되고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8], 성별에 따른 남용약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중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9]. 청년층은 성별에 따라 술과 담배, 다이어트제 진통제, 수면제와 같은 남용약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양하며 불법적인 약물의 상습적 남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해외 직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10]. 국내 남용약물의 사용 증가는 해외여행의 증가와 인터넷, SNS 등의 발달에 의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11]. 이에 대학생 을 포함한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마약류와 같은 남용약물

에 대한 사용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약물사용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년기본법에 해당하는 19세 이상인 K지역 내 4개 대학교와 2개 전문대학의 대학생과 34세 이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대상자는 총 1051명으로 남성이 686명(65.0%), 여성이 365명(35.0%)이고, 설문지는 총 1,200부를 배부하여 내용이 불충분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149부(12%)를 제외한 1051부의 유효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조사의 대상자는 K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자기 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다양한 선행자료[8] 및 문헌을 기초로 작성한 기본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 후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2004년 남용약물 실태조사 Gwon[12]가 사용한 평가도구의 내용을 반영하여 청년층의 일반적인 특성,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음주와 흡연 및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실태와 남용약물 폐해에 대한 인식과, 남용약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약물에 대한 인식은 Kwon[13]이 작성한 설문지(Cronbach's α = .8328)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3 자료 분석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실태와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 코딩 및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24)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청년층의 일반적인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K지역 청년층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 총 1051명 중, 남성이 686명(65.2%), 여성이 365명(34.7%)이고, 나이는

10대가 705명(67.0%), 20대가 250(23.7%), 30대가 96명(9.1%)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 770명(73.2%), 전문/자유직 68명(6.4%), 경영/관리직 4명(0.3%), 생산/운수직 10명(0.9%), 판매/서비스직이 22명(2.0%), 사무/기술직 75명(7.2%), 무직 102명(9.7%)이었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413명(39.2%), '건강하다' 424명(40.3%), '보통이다' 184명(17.5%), '건강하지 않다' 25명(2.3%), '매우 건강하지 않다' 3명(0.2%)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N=1051)

		N	(%)
gender	male	686	65.2
	female	365	34.7
age	teenager	705	67.0
	20's	250	23.7
	30's	96	9.1
job	College student	770	73.2
	Professional/Freelance	68	6.4
	management/management position	4	0.3
	production/transport job	10	0.9
	Sales/Service Jobs	22	2.0
	office worker/technical worker	75	7.2
	inoccupation	102	9.7
health status	very healthy	413	39.2
	healthy	424	40.3
	average	184	17.5
	not healthy	25	2.3
	not very healthy	3	0.2

3.2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마약류와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실태

K지역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마약류와 남용약물에 대

한 사용실태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 총 1051명 중 성별에 따른 음주여부는 남성이 260명(37.9%), 여성이 181명(49.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흡연 여부는 남성이 114명(16.6%), 여성이 13명(3.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는 여성 56명(15.3%), 남성 14명(2.0%)로 여성이 남성보다 식욕억제제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 강화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진정수면제는 여성 8명(2.1%), 남성 4명(0.5%)로 여성이 남성보다 진정수면제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편계열 진통제는 여성 60명(16.4%), 남성 51명(7.4%)로 여성이 남성보다 아편계열 진통제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약물 중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와 필로폰의 사용경험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와 흡연 및 남용약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는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적응이 힘든 시기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충동과 호기심에 의해 다양한 남용약물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15].

3.3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마약류와 남용약물에 대한 폐해에 대한 인식

K 지역 청년층들의 성별에 따른 마약류와 남용약물 폐해에 대한 인식 정도는 Table 3와 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 총 1051명 중에서 남용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잘 알고 있다'는 남성 278명(40.0%)으로 여성보

Table 2. Current status of young people's use of narcotics and drugs of abuse by gender

Classification		Male(%)	Female(%)	χ^2	p
Alcohol	use	260(37.9)	181(49.5)	13.571	<.001*
	not use	426(61.0)	184(50.4)		
Smoking	use	114(16.6)	13(3.5)	33.222	<.001*
	not use	572(83.3)	352(96.4)		
Appetite suppressant	use	14(2.0)	56(15.3)	64.196	<.001*
	not use	672(97.9)	309(84.6)		
Muscle enhancer	use	26(3.17)	21(5.7)	3.155	.076
	not use	660(96.2)	344(94.2)		
Sedative sleeping pills	use	4(0.5)	8(2.1)	5.853	<.016*
	not use	682(99.4)	357(97.8)		
Opioid analgesic	use	51(7.4)	60(16.4)	21.157	<.001*
	not use	635(92.5)	305(83.5)		
Cannabis	use	3(0.4)	0(0)	2.968	.227
	not use	683(99.6)	365(100)		
Pillopon	use	1(0.1)	2(0.5)	2.644	.267
	not use	682(99.9)	363(99.5)		

다 남성이 마약류 및 남용약물 위험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약물이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남성 66.8%로 여성54% 보다 마약류 및 남용약물 유발 문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용약물에 대한 폐해 인식은 높으나[16], 그 외의 비 마약류 남용약물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비마약성 약물의 사용 증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17].

Table 3. Awareness of the harmful effects of abused drugs according to gender among young people

		Male (%)	Female (%)	χ^2	p
Awareness of the dangers of drug abuse	Know well	295 (43.0)	106 (29.0)	17.051	.002
	Know a little	218 (31.7)	141 (38.6)		
	Not at all	136 (19.8)	83 (22.7)		
	No Answer	37 (0.5)	35 (9.5)		
	total	686 (100)	365 (100)		
Recognition of various problems caused by drug abuse	Know well	202 (29.4)	63 (17.2)	15.829	.003
	Know a little	249 (36.2)	131 (35.8)		
	Not at all	176 (25.6)	118 (32.3)		
	No Answer	56 (0.8)	53 (14.5)		
	total	686 (100)	365 (100)		

3.4 남용약물에 대한 인식개선방향과 교육방법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남용약물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Fig. 1에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 총 1051명 중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chi^2 = 63.251, p < .001$) 남용약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여성 257명(68.2%)이 홍보(계몽)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Fig.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chi^2 = 9.813, p < .044$).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에 대해서 남성은 379명(54.2%)이 인터넷 온라인 교육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남용약물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비교 시 남용약물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약물을 더 남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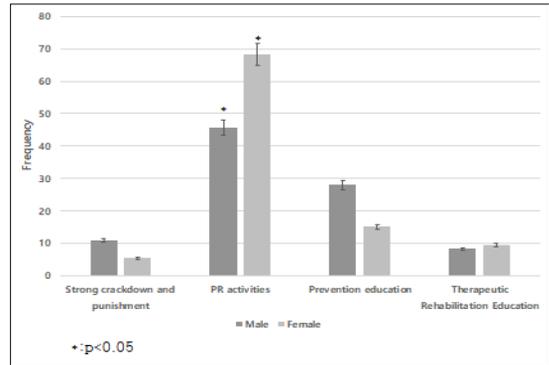


Fig. 1. A desirable way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drugs of abuse by gender among young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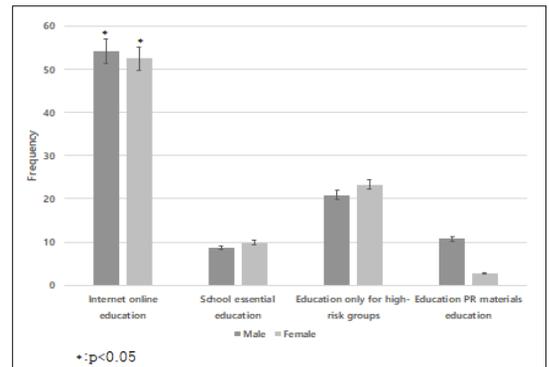


Fig. 2.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for preventing drug abuse by gender among young people

4. 결론

본 연구는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남용약물의 사용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약물남용을 예방하고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부분 10대에 처음 시작하는 음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음주 경험이 많았으며 흡연은 남성이 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약물 사용실태에서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아편계열 진통제 사용실태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사용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남용약물의 폐해에 대한 인식 중 남성이 남용약물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유발 문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에 의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여성 257명(68.2%)이 홍보(계몽)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교육방법 남성은 379명(54.2%)이 인터넷 온라인 교육으로 나타났다. 남용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가운데 호기심으로 시작된 약물남용으로 약물중독의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남용약물사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접근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M. H. Lee. (2007). Knowledge and Attitudes of School Teachers Toward Tobacco, Alcohol, and Other Drug Use and School Health Policy.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6(3), 250-257.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3.275
- [2] Rehm, B. Taylor & R. Room. (2006). Global burden of disease from alcohol illicit drugs and tobacco. *Drug Alcohol Rev*, 25(6), 503-513.
DOI : 10.1080/09595230600944453
- [3]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021). *Drug crime white paper. seoul*.
- [4] M. H. Lee. (1996). Effects of drug education and human potential seminar/group therapy on the mental health status, and the knowledge of drugs among juvenile delinquents. *J. Korean Acad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 5(1), 5-16.
- [5] C. S. Park, C. Y. Eun & M. Y. Jeong. (1999).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preventive strategies of adolescent drug abuse. *J Korean Acad Nurs*, 29(1), 127-138.
DOI : 10.4040/jkan.1999.29.1.127
- [6] J. H. Lee & D. W. Kang. (2018). Current Situation of Youth Crimes Related with Substances Abuse and their Countermeasures. *Juvenile Protection Research* 31(4) 199-236.
DOI : 10.35930/KJPR.31.4.7
- [7] S. N. Cho. (2013). Current Situation of Substance Abuse and Treatment Strategies. *Medical laws*. 14(1), 11-36.
- [8] B. S. Choi & J. S. Park. (2022). A survey of general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3),275-280.
DOI : 10.15207/kcs.2022.13.03.275
- [9] K. S. Han, S. Y. Moon, H. O. Park & E. H. Park. (2000). The Survey on the Drug use status, Knowledge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Seoul and Northern Part of the Kyunggi-do).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2), 376 - 389.
- [10] J. S. Kim, O. S. Lee & S. C. Lim. (2013). Evaluation of Drug Information for Acquisition Methods and Risk of Drug Misuse in Korean Students. *Yakhak hoeji*, 57(1), 55-62.
- [11] Korea Anti-Drugs Movement Headquarters. Report on the results of a public awareness survey on the severity of narcotics in 2019.
- [12] K. H. Gwon. (2004). *National Survet on the Drug Abuse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13] JI. S. Kwon. (1991) Effects of Approaches by Health Education Method on Changes in Drug Use Knowledge and Attitudes of High School Girls.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 [14] H. K. Lee, S. J. Kim, S. C. Yoon, S. Y. Bong, H. J. Ahn & S. Y. Park. (2001). A Survey of Adolescent Substance Uses in a Small Cit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1), 23-34.
- [15] L. Dusenbury, E. Khuri & R. B. Millman. (1992) : Adolescent substance abuse. In : Substance Abuse, *Comprehensive Textbook*. 2nd ed, 832-842
- [16] G. A. Fritz & W. E. Niemczyk. (2002). Propofol dependency in a lay person. *Anesthesiology*, 96(2), 505-506.
DOI : 10.1097/00000542-200202000-00039
- [17] M. S. Lee & W. S. Ahn. (2011). Designation of a new drug as a controlled substanc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4(2), 189-196.
DOI : 10.5124/jkma.2011.54.2.189
- [18] Y. C. Cho & H. K. Yang. (2007). Knowledge and attitudes of some college students on general drugs that they use by self-judgment and ststus and relevant factors.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24(1), 45-61.
- [19] A. K. Jha, G. J. Kuperman, E. Rittenberg, J. M.

Teich & D. W. Bates. (2001). Identifying hospital admissions due to adverse drug events using a computer-based monitor. *Pharmacoepidemiol Drug Saf*, 10, 113-119. DOI : 10.1002/pds.568

정 현 주(Hyun-Ju, Jeong)

[정회원]



- 1991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임상간호, 간호문화
- E-Mail : jhjudee@nambu.ac.kr

박 정 숙(Jeong-Sook, Park)

[정회원]



- 1996년 2월 : 원광대학교 약학과 (약학석사)
- 2002년 2월 : 원광대학교 약학과 (약학박사)
- 2014년 9월~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교수

- 관심분야 : 생약학, 대체의학, 약물중독
- E-Mail : pk0207@nambu.ac.kr